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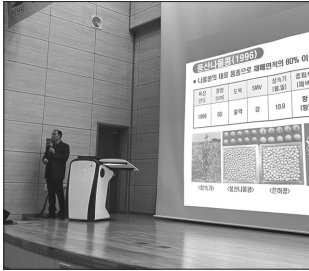
익산시, 논콩 재배 확대 총력전

내년까지 논콩 재배면적 1500ha 목표로 종합지원 나서
재배지원금 ha당 최대 400만원·필요 농기계 장기 임대

익산시가 벼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 논콩 재배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콩을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논콩 재배면적을 현재 919ha에서 1,500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논콩 재배 확대 추진단을 구성하고, 직불금 지원, 교육·기술지도, 농기계 임대, 병해충 방제, 종자 확보 등 정책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시는 농가·공무원·전문가로 구성된 '논콩 재배 확대 추진단'을 운영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와 들녘별경영체를 육성하는 등 콩 전문 재배 조직화를 통해 재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인다.

또 시는 논콩 재배 농가에 초기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와 협력해 논콩 재배 시 ha당 최대 200만원, 동계작물 밀과 연계 재배 시 ha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콩 유통·가공시설 설치와 농가 컨설팅을 위한 33억원 규모(교육 11개

소, 시설장비 6개소)의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밀 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보급사업'(국비 1억원), 기계화 정비 보급(국비 2억원), 병해충 방제(시비 8,700만원), 종합관리 시범사업(도비 1억원)도 함께 추진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장기임대 가능한 공과중기와 탈곡기, 종합처리시설 등을 확충 구비해 콩 재배의 기계화·편의성도 높인다.

또한 시는 논콩 재배 최신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농업인대학 논콩 전문 CEO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농가 선호 품종인 '선품', '대찬' 등 정부 보급종 1만5,200kg을 공급했으며, 일반 농가 채종 우량종자를 연계·알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우량종자 채종도 지원사업을 추진해 자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1분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67개 주요 사업 국소별 상세 점검·대응 방안 5일간 릴레이 논의

군산시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2025년 1분기 주요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역점 및 현안 사업 67건에 대해 점검했다.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이어진 이번 보고회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탄핵 정국 이후 이어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시장과 참석자들은 각 사업의 1분기 진행 상황이 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등 행정절차, 공정률,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소비·투자 분야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논의에 집중했다.

군산시는 달달 야시장, 플리마켓 등 경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추진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 미디어 홍보, 안전 개선 등 상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건설 분야에서는 침수예방 극대



화를 위해 문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3개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완공 시기 단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다른 상습 침수지역인 조촌동, 개야도, 미룡동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간부 공무원들에게 빈틈없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시책이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이다. 따라서 군산시는 관광객 유치, 전통시장 지원, 청년 창업 등 다양한 경기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어려운 현안 과제들에 대한 전담 회의를 정례화해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5년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 공모 접수

군산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다문화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 증진사업 등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3,290만원으로 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사업추진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군산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신청서는 군산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63-454-321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침수피해 제로화'

위한 재해 예방사업 총력

군산시가 작년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성산면, 나포면 일원)을 비롯한 29개소재해복구사업과 상습 침수지역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극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 증가 방지 △저지대 피해 제로화 △배수불량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는 4월 안에 총사업비 1,435억 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위한 설계업체 선정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문화동·나운동·신풍동·경암동 일원에 △우수저류조(규모 25,000㎡)와 우수저류 시설(규모 2만3,000㎡) 설치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로(길이 2,100m) 개선 △사범시설 3개소와 펌프장 증설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청송 찾아 따뜻한 밥으로 온정 나뉘

정현울 시장, 직접 산불 피해 지역 찾아 무료 급식 봉사

시청 직원 성금 2500만원… 시민들도 성금 기탁 잇따라

익산시가 사람의 발차를 끌고 경북 청송군을 찾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한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2일 청송군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재민을 위한 '사랑의 밥차'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익산시는 구호 텐트를 비롯해 쌀, 생수, 라면 등 긴급 생필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정현울 시장은 구호 물품 전달 후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고,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밥차 봉사활동에 동참해 따뜻한 식사

를 함께 나누며 이재민을 위로했다.

익산시는 이번 봉사활동에 앞서 성금 모금과 구호물품 지원을 활발히 이어온 바 있다. 우선 시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2,500만 원을 기탁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도 경원상사(대표 박종근)의 후원을 받아 마스크 5,000매를 경북 의성군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청송 현장에서도 '사랑의 밥차'로 직접적인 구호 활동을 이어갔다.

시민들의 기탁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송학동 지역 단체 200만원, 여산면 주민 130만원, 동산동 지역 단체 120만원, 평화동 주민 100만원 등 익산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영남에 닿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대표위원 유재구 의원 등 7명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2일 의정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대표위원인 유재구 의원을 비롯해 조남석 의원, 소병홍 前 시의원, 방경진 세무사, 박선식·김시영·김진성 前 공무원이

선임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세입·세출예산, 기금 등 익산시 재정 전반에 관해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감사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경기둔화, 세수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익산시의

재정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향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표위원인 유재구 의원은 "선심성 예산, 불투명한 예산이 없는지 또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꼼꼼히 심사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내달 15일까지

익산시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 및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국가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상황 해지 시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봄철 개화 시기와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의 야외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총 13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비상 대기 조치하고, 산불취약지 순찰, 마을 방송,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수칙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고의는 물론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정현울 시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한 분 한 분의 주의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금지, 성묘 시 화기 취급 주의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